

# 북

## 왜곡된 한국현대사 진실찾기

###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정길화·김환규의 지음



#1970년 3월 17일, 26세 미모의 여인 정인숙이 자신의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친오빠 정종욱이 쓴 총에 맞아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꾸짖던 오빠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결론의 발표가 있었지만 소문과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3살만 아들을 둔 미혼모였던 그녀에게서 거액의 외화와 정부 고위인사 26명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999년 지나 가석방된 정종욱은 자백을 180도 뒤집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스물한 살 청년 박흥숙은 1977년 4월 20일 무등산 중심사 계곡 덕산골(이른바 무당골)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던 동구청 소속 철거반원 4명을 살해했다. '이소룡처럼 되겠다고 단봉을 익히며 칼 던지기를 연마했고, 낙법, 줄타기를 연습한' 일명 '무등산 타잔' 박흥숙은 과연 사이비 종교와 무분별한 영

옹주의에 사로잡힌 흉악범이기만 한 걸까. 지난이 촉발한, 시대가 낳은 범죄는 아니었을까.

굴곡진 한국현대사를 재조명한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방영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다. 1999년 1편 '제주 4·3'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모두 100편이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오랜 기간 입을 다물고 있던 많은 이들

### MBC 다큐 '이제는 말할 수…'

### '박흥숙 사건' 서 'SOFA' 까지

### 역사적 사건 20개 뽑아 엮어

이 진실의 입을 열었고 수십년간 잡자고 있던 각종 자료와 사건 기록들이 빛을 보았다.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13명의 PD가 공동집필한 '우리들의 현대 침묵사'는 100편의 프로그램 중 한국현대사에서 20개의 사건과 제작 뒷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억압과 폭력의 나라'는 박흥숙 사건을 비롯, 강제 징집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학생들, 54명이 사망한 삼청교육대의 인권유

린, 북파 공작원, 5공화국의 '3S'정책을 집중조명한다. 2부 '풀리지 않는 역사 속 미스터리'에서는 박정희 시해 사건, 김형욱 실종 사건 등 의문의 죽음과 함께 아직도 드세하고 있는 친일파 문제와 강남 투기의 역사를 다룬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치부 '레드 캠플렉스'를 들여다본다. 양좌제, 민족일보를 창간한 조용수, 대학살의 현장 '보도연맹 사건', 대한방공청년단의 실상을 파악하고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진실도 추적한다.

마지막 장은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쟁인다. 미군에 의해 자행된 기지촌 정화운동, 일본의 핵개발에 얹힌 음모, 맥아더와 한국전쟁,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이 주 아이템이다.

역사는 다시 반복한다. 1994년, 불바다 발언과 전쟁 위기 당시 제기 됐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2006년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논쟁적인 문제가 되었고, 강제 철거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비극적인 인물 '무등산 타잔'은 양극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도시빈민'의 문제와 오버랩된다. 100편의 내용은 MBC(www.imbc.com) 홈페이지 '이제는 말한다' 다시 보기 통해 볼 수 있다. [〈해냄·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은 '도시 빈민'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3S 정책'을 평한 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하는 모습.

### 정운영씨 유자 2권

### 이론서·칼럼집 출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고(故) 정운영씨 1주기(9월24일)를 맞아 이론서와 칼럼집 등 유작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자본주의의 경제산책'은 지난 1993년 출간된 '노동 가치이론 연구'(까지 펴냄)의 후속편 성격을 띠면서 현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세계화와 금융투기로 특징지어지는 세기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197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를 회상하는 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와 남북 관계를 전망한다.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 하라'는 저자의 아홉번째 칼럼집, 책의 제목은 저자가 평소 강단에서 자주 하던 말에서 인용 했다고 출판사측은 밝혔다. [〈웅진·이론서 1만3천원, 칼럼집 1만2천원〉](#)

## 불꽃튀는 변론... 생생한 공판중심주의 법정

### 세상을 바꾼 법정

미첼 콜드웰·마이클 리프 지음



1975년 카렌 앤 퀸란의 안락사 논쟁에서 퀸란 측 변호인들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치의 측은 환자의 생명이 살아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도 있다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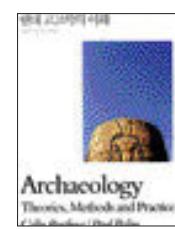
변론은 변론을 거듭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현실적 지각을 찾을 수 없는 환자에게 국가가 식물인 간이라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다. 이 판결로 인해 안락사를

희망하는 생전 유언과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하는 사전 지시가 가능해졌다.

1872년 여성운동가 수전 앤서니의 재판은 50년 이후 마침내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는 계기가 됐다. 선거에서 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된 앤서니는 '참정권이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노예와 다르지 않으며, 민주 국가에서 참정권 없는 여성의 자유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조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200년 역사의 노예 제도에 종지부를 찍은 1839년 아미스터드 선상 반란 재판, 1950년대 메카시즘의 광풍에 맞서 라디오 DJ 존 헨리 폴크가 벌인 6년 간의 재판, 18세기 초 언론 자유를 위해 정부 측과 법정 싸움을 했던 '뉴욕 위클리 저널'의 발행인 쟁이의 재판 등은 공판중심주의의 묘미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궁금·2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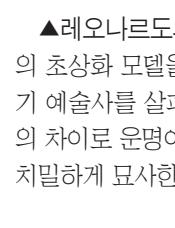
▲현대고고학의 이해=고고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알려주는 고고학 입문서다. 고고학자인 롤린 랜드류와 풀 반은 수많은 예술을 통해 고고학을 쉽게 전달한다. 고고학, 역사학 학생들의 입문서로 쓰일 만큼 개괄적인 정리가 잘 되어있다. [〈사회평론·4만원〉](#)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놓고 찬반이 한창인 가운데, 논란이 되는 전작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을 읽은 (사)한국국방안보포럼은 전작권 추진 반대론자의 시각, 찬성론자의 시각, 참여정부 시각 등을 균형있게 소개하고 전작권의 개념을 설명한다. [〈플래닛미디어·1만9천원〉](#)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2, 3=안대희, 이종복, 조현설 등 대표적 국문학자와 한문학자들이 '단군신화' '금오신화' 등 우리의 고전을 맛깔스럽게 풀이한다. 1권 신화·민담·여행기, 2권 옛소설·옛노래, 3권 성·시·광·일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휴먼미스트·각권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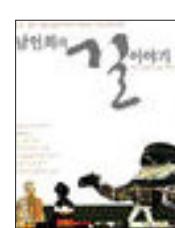


▲평화는 나의 여행=이아크반전평화팀에

서 활동하고 있는 임영선이 지난 4년간 베트남,

레바논 등 20개국을 넘나들며 느꼈던 평화의 의미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분쟁지역 아이들을 위한 평화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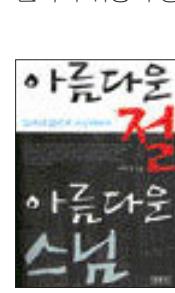
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출판사·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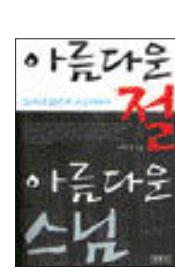
▲남인희의 길 이야기=현대인에게 깊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30여년 간 길을 만드는 일에 몰두해온 남인희 기반시설 본부장이 길의 역사와 길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책을 통해 저자의 길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삶과꿈·1만5천원〉](#)



▲백화점의 탄생='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백화점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가시마 시게루 교수는 파리에서 문을 연 최초의 백화점 봉 마르제의 창업자 부시코 부부의 일대기를 통해 현대자본주의의 엿본다. [〈뿌리와이파리·1만1천원〉](#)



▲토머스 혁슬리=진화론 논쟁에서 첼스 다윈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토머스 혁슬리. 그는 특정 분야의 전문인을 암시하는 듯한 과학자 보다는 과학지식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저자 폴 헤이트는 토머스 혁슬리의 일생을 통해 현대 과학 및 과학자들의 사회·문화적 위상의 형성과정을 살핀다. [〈사이언스북스·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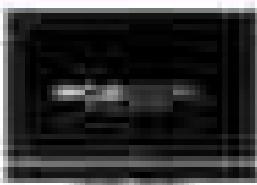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월간 해인'에 연재됐던 33인의 스님들의 인터뷰 기사를 모은 책이다. 기자 출신 이연정은 수행에 몰두하는 스님, 운동권 스님, 농사꾼 스님 등 다양한 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불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을 되돌아 본다. [〈민족사·1만2천원〉](#)

### BRAVIA

### SONY

## 브라비아 2년 무상보증 서비스 실시!



BRAVIA



## 사무용 가구의 모든 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oGAGU.com](http://www.hanboGAGU.com)

## 사무용 가구 전문 농성제작 토지 광주총판

전화 010-4210-5100

